

유가 철학의 커먼즈 개념 적용 가능성 연구

태극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Commons in Confucianism : Focused on Taeguk-ron

정두호*

국문요약 이 논문은 유가 철학과 커먼즈(Commons) 논의의 결합을 위한 첫 단계로 커먼즈 논의에 유가 철학의 우주·본체론, 특히 주희(朱熹)의 태극론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한 것이다.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극이 자기 전개를 통해 보편 원리에서 구체 사물로 확장되듯이 커먼즈의 원리는 구체 커먼즈로 확장되며, 이 구체 커먼즈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이다. 여기서 커먼즈의 원리는 인간-비인간의 구분 없이 작동한다. 둘째, 태극이 자기 현현을 통해 구체 사물에 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커먼즈의 원리(一)는 구체 커먼즈(多)에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다. 다만 천지 만물이 서로를 위배하지 않고 공생(共生)하듯이 각각의 구체 커먼즈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유가 철학의 커먼즈에 대한 해석 적용은 보편 도덕 법칙인 태극이 자기 전개, 자기 현현을 통해 천지 만물에 내재되어 있어 우리가 마땅히 도덕을 추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비인간의 구분 없이 모든 존재가 커먼즈를 추구하고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커먼즈가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수행적 개념임을 강조한다면 형이상학과 윤리도덕의 실천 문제가 일치해 있는 유가 철학을 통해 커먼즈 관련 논의를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유가 철학, 커먼즈, 태극론, 자기 전개, 자기 현현

- 차례**
1. 서론
 2. 주희 태극론에서의 일(一)과 다(多)의 문제
 3. 일(一)과 다(多)로서의 커먼즈
 4. 결론

을 뜻한다. 어떤 가치나 재화를 공유함에 있어서 그 공유 대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권이 부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듯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커먼즈는 용어와 사례의 친숙함과 달리 개념 정의와 번역의 문제, 그 의미 등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다.

오스트롬(Elinor Ostrom), 데 안젤리스(Massimo De Angelis), 볼리어(David Bollier), 바우웬스(Michel Bauwens)를 비롯한 국내외 많은 커먼즈 연구들이 자원(resources), 공동체(community), 공동 자원 관리 제도나 활동(commoning), 세 축을 중심으로 커먼즈를 정의하는데,¹ 박순열·안재룡은 이

1. 서론

이 논문은 유가 철학과 커먼즈(Commons) 논의의 결합을 위한 첫 단계로 커먼즈 논의에 유가 철학의 우주·본체론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커먼즈란 어떤 특정한 가치나 재화 등을 공유하는 행위 등

* 동국대학교 철학과 강사

1 Eidelman, T. A. & Safransky, S., "The urban commons: a keyword essay" in *Urban Geography* Vol.42 No.6, 2021; Kip, Markus et al.,

와 같은 정의에 대하여 '특정한 자원-공동체-제도의 결합 등의 커먼즈를 만들어가려는 행위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변적'이라고 지적한다.² 즉, 커먼즈는 고정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닌 위의 세 축의 결합 방식에 따라, 커먼즈가 가지는 이해관계, 지향하는 가치 등에 따라 항상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권범철이 지적하듯이 "커먼즈의 여러 개념과 실천, 정책, 사업 수단 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³ 공동체의 나누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이 커먼즈라는 것이다.

이처럼 커먼즈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철학적 연구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연구 또한 존재하는데, 특히 윤영광과 박서현은 공통주의(Commonism)에 입각하여 커먼즈를 분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⁴ 여기서 공통주의는 안토니오 네그

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그 어떤 사회와 제도도 근본적으로는 공통적인 것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회의 성격은 그것이 공통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즉, 그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⁵ 윤영광은 이러한 맥락에서의 '공통주의'는 정치·경제·사회적 범주들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식론적·가치론적 문제들까지도 공통적인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사유하는 이론적·실천적 태도를 가리킨다⁶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주의, 특히 사회와 제도가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은 개별·구체에 대한 논의를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커먼즈가 어떠한 공통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각각의 커먼즈가 지니는 고유한 특징과 가변성 등을 드러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⁷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커먼즈 공통의 원리

"Seizing the (Every)Day: Welcome to the Urban Common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äuser, 2015; 박인권·김진언·신지연,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9(3),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김우창·윤순진·박선아·박정민·신동조, 「공동자원으로서의 산, 마을주민의 공동자원 만들기: 순천시 용계산과 구상계곡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30(2), 한국농촌사회학회, 2020; 정영신, 「도시커먼즈는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전환의 정치, 열 개의 시선』, 도서출판 풀씨, 2022.

2 박순열·안새롬, 「현대사회에서 커먼즈 논의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경의선공유지를 사례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7(2), 한국환경사회학회, 2023, 147~148쪽. 박순열·안새롬은 루만(N. Luhmann)의 사회체계 이론을 활용하여 커먼즈를 정의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르면 커먼즈는 정치 체계나 경제체계와 등가적인 하나의 사회적 체계로서 다른 사회적 체계들과 공통 작동하는 커먼즈 또는 커먼즈 체계이다. 특히 기능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커먼즈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체계들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복잡성과 체계 간의 종속으로 인한 오픈 등으로 인해 사회체계를 가로지르는 공통의 작동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박순열·안새롬, 「현대사회에서 커먼즈 논의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경의선공유지를 사례로」, 『ECO』 27(2), 한국환경사회학회, 2023, 149~168쪽.

3 권범철, 「커먼즈의이론적지형」,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17쪽.

4 박서현, 「커먼즈의 철학으로서의 공통주의: 자기 변화의 윤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68, 고려대 철학연구소, 2023; 윤영광, 「네그리의 공통

주의와 공통적인 것」, 『범한철학』 104, 범한철학회, 2022a; 「네오오페라 이즘의 커먼즈론: 자본의 코뮤니즘이라는 역설의 문제화」, 『시대와 철학』 33(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2b.

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저,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책, 2014, 234~235쪽.

6 윤영광, 「네그리의 공통주의와 공통적인 것」, 『범한철학』 104, 범한철학회, 2022a, 218쪽.

7 국내 커먼즈 연구 중 '000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통해 구체적인 커먼즈의 사례를 들어 커먼즈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연구들이 개별 커먼즈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통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공통된 커먼즈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커먼즈의 고유한 특징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현우·정석,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에 관한 연구: 공유인관점으로 바라본 돈의동 쪽방촌 마을식당 현장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32(4),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정영신, 「제주 비자림로의 생태정치와 커먼즈의 변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25(1), 한국환경사회학회, 2021; 조명기, 「지역 만들기와 커먼즈 논의 확장의 가능성: 경남 하동군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2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한상진, 「생태사회적 커먼즈를 향한 성찰과 관련 사례들: 울산의 영남 알프스, 태화강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홍지은, 「커먼즈를 둘러싼 정치와 변동하는 도시 커먼즈: 청주시 산남 두꺼비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6(1), 한국환경사회학회, 2022 등.

를 포착함과 동시에 개별 커먼즈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커먼즈 논의를 유가 철학의 우주·본체론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공통으로 작동하고 있는 커먼즈의 내재 원리와 구체 커먼즈의 고유한 특징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유가 철학, 특히 주희(朱熹)의 태극론을 중심으로 보편 내재 원리와 구체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一)과 다(多)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커먼즈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2. 주희 태극론에서 일(一)과 다(多)의 문제⁸

주희의 철학 체계 내에서 태극(太極)은 우주 생성 및 존재의 근원으로, 주희의 '태극은 리(理)'는 연속적이고도 실재하는 세계를 담보한다. 이러한 태극은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근거로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陽)을 생성하며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하게 되고, 고요함은 음(陰)을 생성하며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인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해짐이 서로 그 근본이 되고, 음(陰)으로 나뉘고 양(陽)으로 나뉘어 양의(兩儀)가 확립된다. 양(陽)이 변하고 음(陰)이 합해져서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를 생성하고, 이 다섯 가지 기운이 순조롭게 퍼져 사계절이 운행된다. 오행(五行)은 하나의 음양(陰陽)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無極)이다. 오행이 생겨남에 각각 그 성(性)을 하나로 한다. 무극의 진(眞)과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정기(精氣)가 오묘하게 합치고 응집하여 건도(乾道)는 남성이 되고 곤도(坤道)는 여성이 되니, 두 기(氣)가 서로 감응하여

만물을 변화 생성하고, 만물을 낳고 낳아 변화가 끝이 없다.⁹

주돈이는 우주 생성의 과정을 ‘무극·태극 ↔ 음양 ↔ 오행 ↔ 만물’로 도식화하는데, 본원인 무극·태극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되고 이 만물은 다시 본원으로 수렴한다. 또한 이에 따르면 태극의 끊임없는 동정(動靜)을 통해 음양이 생기고 오행이 갖추어지며, 이에 만물이 생겨난다. 이 태극에 의한 만물 생생(生生)의 과정은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태극은 우주 생성의 근원이다.

여기서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은 ‘무극이면서 태극’으로 해석하는데, 무극은 태극에 형이상의 속성을 부여하고 태극은 무극에 실재성을 부여하여 결국 ‘무극이면서 태극’은 태극이 형이상의 실재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형이상의 실재인 태극이 리(理)인가 기(氣)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태극이 기(氣)¹⁰라면 유(有)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보편 도덕과 내재 원리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기(氣)는 선악이 혼재하며 물질적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태극의 리기(理氣) 문제와 관련하여, 주희는 태극이 리(理)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태극은 단지 천지 만물의 리(理)일 뿐이다. 천지에 대하여 말하면 천지 속에 태극이 있고, 만물에 대하여 말하면 만물 속에 각각 태극이 있다.¹¹

9 『太極圖說』, “無極而太極。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 伍氣順布四時行焉。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五行之生也, 各一其性。無極之眞, 二伍之精, 妙合而應,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而變化無窮焉。”

10 손흥철은 주돈이가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太極圖說』,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라고 말한 점을 들어 주돈이는 태극을 기(氣)로 보았다고 말한다. 손흥철, 「周敦頤의 “太極”과 理氣概念의 關係分析」,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2017, 44쪽. 다만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太極圖說』, “太極本無極也.”)의 구절을 본다면 태극을 리(理)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1 『朱子語類』 卷1「理氣上」, “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 在天地言, 則天地中有太極, 在萬物言, 則萬物中各有太極.”

8 이 장의 내용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정두호, 「정도전 백이단론(關興端論)의 성리학적 근거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태극은 다만 리(理)이다. 따라서 리(理)가 천지 만물에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태극 또한 만물에 존재한다. 또한 태극은 ‘천지 만물의 리(理)를 함하여’¹² 말한 것으로 리(理)의 총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태극의 동정(動靜) 문제가 발생한다. 운동하지 않는 무위(無爲)한 태극에서 음양의 기(氣)가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¹³ 주희의 제자 정자상(鄭子上)은 태극의 동정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태극은 리(理)인데, 리(理)가 어떻게 동정할 수 있습니까? 형체가 있으면 동정이 있는데, 태극은 형체가 없으니 동정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남헌(南軒)이 ‘태극은 동정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¹⁴

주희는 위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다.

리(理)에 동정이 있으므로 기(氣)에 동정이 있다. 만약 리(理)에 동정이 없다면 기(氣)가 어떻게 스스로 동정하겠는가?¹⁵

이 인용문은 표면적으로는 리(理)가 동정하기 때문에 기(氣)가 동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태극에 관한 인용문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태극은 내재 원리이기

때문에 기(氣)의 동정 ‘근거’가 리(理)임을 알 수 있다. 즉, 기(氣)가 운동할 수 있는 원인이 리(理)인 것이다.

태극의 동정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극의 동정은 경험적 운동이 아니다. 주희는 “태극은 리(理)요 동정은 기(氣)이다”¹⁶라고 하여, 모든 운동은 기(氣)의 속성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태극의 동정은 자기 전개(self unfolding) 작용이다. 태극이 구체적인 질료를 생성할 수 있는 원기(元氣)가 아닌 형이상의 리(理)이기 때문에 우주 생성의 근원이 되려면 운동할 수 있는 이치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었다. ‘태극이 움직여 양(陽)을 생성한다’는 움직임의 이치가 있어서 곧 움직여 양(陽)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했다. 움직임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곧 움직여 양(陽)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고, 고요함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곧 고요하여 음(陰)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움직이면 리(理)는 또 움직임 속에 내재하고, 고요하면 리(理)는 또 고요함 속에 내재한다.¹⁷

음양이 생겨난다는 것은 태극의 직접적인 동정으로 인한 생성이 아닌 태극의 자기 전개가 음양임을 의미한다. 즉, 태극은 동정의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개가 가능하다. 주희는 태극의 자기 전개를 본체와 유행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태극이 동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면 본체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요, 태극에 동정이 있다고 말하면 유행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만약 태극이 곧 동정이라고 한다면 형이상자(形而上者)와 형이하자(形而下者)가 나눌 수 없어 ‘역(易)에 태극이

12 『朱子文集』 卷78 「太極圖」, “蓋其所謂太極云者, 合天地萬物之理而一名之耳.”

13 주광호는 태극의 동정 문제를 우주론 함의에서의 리(理)로서의 태극과 본체론 함의에서의 기(氣)로서의 태극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주광호, 『朱熹太極論에 나타난 宇宙論과 本體論의 分化和 疏通』,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그러나 태극은 다만 리(理)라는 점과 송(宋)대 유학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한(漢)대 유학의 원기론(元氣論)이었다는 점, 그리고 주희가 태극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14 『朱子大全』 卷56 「答鄭子上」, “太極理也, 理如何動靜. 有形則有動靜, 太極無形, 恐不可以動靜言. 南軒云太極不能無動靜, 未達其意.”

15 『朱子大全』 卷56 「答鄭子上」,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則氣何自而有動靜乎.”

16 『朱子語類』 卷94 「周子之書」, “太極, 理也, 動靜, 氣也.”

17 『朱子語類』 卷94 「周子之書」, “太極動而生陽, 是有這動之理, 便能動而生陽否. 曰有這動之理, 便能動而生陽有這靜之理, 便能靜而生陰. 既動則理又在動之中, 既靜則理又在靜之中.”

있다'라는 말도 불필요하다.¹⁸

본체의 측면에서 태극은 동정을 포함한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 상태이다. 다만 그 태극에 동정이 있다는 것은 유행의 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태극의 자기 전개를 의미한다.

셋째, 태극은 자기 현현(self manifestation)한다. 이는 본체론의 관점에서 태극이라는 우주 생성의 원리가 어떻게 만물에 내재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주희는 태극의 분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었다. 『통서』(通書) 리성명(理性命)장 주에서 '근본에서 말단까지 하나의 리(理)의 실질로 만물이 그것을 나누어 받아 체(體)를 삼기 때문에 만물에 각각 하나의 태극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태극이 분열한 것입니까? 말했다. 본래 단지 하나의 태극이지만 만물이 각기 품부하여 받았으니 또 각자 모두 하나의 태극을 구비한 것이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일 뿐이지만 강이나 호수에 있으면 곳곳에서 보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달이 나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¹⁹

리일분수(理一分殊)에서 '분수'(分殊)는 쪼개져 나뉘는 뜻이 아닌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됨을 의미한다. 달이 물 위에 비친 것²⁰처럼 만물에 각기 그 태극이 내재되

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물은 각각 개별의 이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귀결되는 보편 이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氣)의 운동 작용에 리(理)가 그 원리로 내재해 있다는 것을 넘어 이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물이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현현의 의미를 나타낸다.²¹

이상으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태극의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극은 무극이다. 무극이면서 태극이기 때문에 태극은 형이상의 실재이다. 둘째, 태극은 리(理)이다. 따라서 태극은 우주 생성 및 존재의 근원이다. 셋째, 이렇게 무위(無爲)한 태극은 자기 전개를 통해 만물을 생성하며, 만물을 생성하는 기(氣)의 동정하는 근거이다. 넷째, 태극은 자기 현현을 통해 이 현상세계 일체 존재에 동일성을 담보한다.

다시 말해 우주 생성 및 존재의 근원인 태극은 운동 작용이 없으나 자기 전개를 통해 만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자기 현현을 통해 태극(一)에서 일체 존재(多)로 분수(分殊)하여 천지 만물에 동일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만물의 개별 이치로 내재해 있다. 이 개별 이치는 만물을 만물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각 구체 사물의 소이연(所以然)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3. 일(一)과 다(多)로서의 커먼즈

그렇다면 이러한 태극의 속성을 커먼즈 논의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넓은 의미에서 커먼즈가 공동체가 나누는 행위,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행위 등을 의

은 실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론체계를 나타낸다. 왕치찬(Wing-Tsit Chan)은 불교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중용』과 『역』, 정이를 인용하여 불교와는 상관없는 '온갖 이치들이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함'에 대한 유학의 오랜 전통이 있음을 강조한다. 왕치찬(Wing-Tsit Chan) 저, 표정훈 옮김, 『진영첩의 주자강의』, 푸른역사, 2001, 149쪽.

21 정상봉, 『朱子形而上學의 深層構造: 太極에 대한 理解』, 『한국철학논집』 3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267~274쪽.

18 『朱子大全』 文45 「答楊子直」, “謂太極含動靜則可以本體而言也, 謂太極有動靜則可以流行而言也. 若謂太極便是動靜, 則是形而上下者不可分, 而易有太極之言亦贅矣.”

19 『朱子語類』 卷94 「周子之書」, “問理性命章注云, 自其本而之末, 則一理之實而萬物分之以爲體, 故萬物各有一太極, 如此則是太極有分裂乎. 曰本只是一太極, 而萬物各有稟受, 又自各全具一太極爾. 如月在天, 只一而已. 及散在江湖, 則隨處而見, 不可謂月已分也.”

20 『朱子語類』 卷94 「周子之書」, “本只是一太極, 而萬物各有稟受, 又自各全具一太極爾. 如月在天, 只一而已, 及散在江湖, 則隨處而見, 不可謂月已分也.” 아라키 겐고의 지적대로 월인만천(月印萬川)은 화엄(華嚴)의 사리무애(事理無碍), 사사무애(事事無碍) 또는 현각(玄覺, 647~713)의 『영가진각대사증도가』(永嘉眞覺大師證道歌)와 유사하며 주희도 이를 인정한다. 아라키 겐고(荒木見愚) 저, 심경호 옮김, 『佛敎와 儒敎』, 예문서원, 2000, 379쪽. 다만 불교에서 물 위에 비친 달은 허상이지만 성리학에서의 그것

미한다면, 이러한 나눔과 가치 지향은 어떤 커먼즈에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구체 커먼즈에 있어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직접적인 예를 살펴보자면, 이러한 나눔과 가치 지향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예로 서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선구적 주거 커먼즈 운동인 ‘빈집’²²이 있다.

이 ‘빈집’에서는 기존의 임대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본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고 공간을 나눈다. 이곳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공유지’로, 이곳에 머무는 누구나 공과금, 대출 전세금의 이자, 기본 식재료와 생필품 비용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전세금에 출자를 했는가와 무관하게 동일한 분담금을 부담하며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만큼의 기간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빈집’에서 커머닝(commoning)하고 있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상호 돌봄’ 등의 가치, ‘물리적 공간’, ‘임대료’ 등의 재화이다. 따라서 여기서 커먼즈의 원리는 자유, 돌봄 등의 가치에 내재하고 있으며, 공간, 자본 등의 물리적/비물리적 재화, 이를 커머닝하는 인간, 커머닝하는 ‘빈집’에 내재하고 있다. ‘빈집’이라는 구체적인 커먼즈와 관련된 모든 가치와 재화, 인간-비인간의 주체에 커먼즈의 원리가 내재하는 동시에 커먼즈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누는 행위와 가치 지향을 내재하고 있는 ‘빈집’이 ‘빈집’이라는 공유 공간의 고유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커먼즈를 커먼즈의 원리와 커머닝을 통한 구체적인 커먼즈로 구분한다면, 앞서 주희의 태극론과 같이 커먼즈는 자기 전개, 자기 현현이라는 커머닝을 통해 구체적인 커먼즈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커먼즈라는 내재 원리는 자기 전개를 통해 커먼즈를 생성하며, 자기 현현을 통해 개별 커먼즈 일체에 동일한 작동 원리를 담보한다. 이러한 도식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커먼즈의 원리는 그 원리 그대로 구체 커먼즈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체 커먼즈 또한 인간-비인간²⁴에 상관없이 커머닝하는 주체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리(理)가 리 일분수(理一分殊)를 통해 분수(分殊)하듯이 각 구체 커먼즈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주희 철학에서 태극은 천지 만물의 본체이다. 현실에서는 각 개체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 본체의 측면에서는 ‘태극’이라는 보편 법칙에 의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천지 만물은 모두 동일한 태극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비인간의 구분이 없이 같은 가치를 지닌다.

주희는 리(太極)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천지 만물의 ‘공생’(共生)의 원리를 제시한다. 『중용』(中庸) 제30장 “만물이 함께 길러지지만 서로 해치지 않으며, 도(道)가 함께 행해지지만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작은 덕(德)은 냇물의 흐름이요, 큰 덕(德)은 조화를 두텁게 하니, 이것이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²⁵라는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며 만물이 그 사이에서 함께 길러져 서로 해치지 않으며, 사시(四時)와 일월(日月)이 교대로 운행하고 교대로 밝아서 서로 위배되지 않으니, 해치지 않

22 ‘빈집’은 2008년 서울 해방촌에서 시작된 공유주거 실험이다.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빈집’ 운동과 그 안에서의 돌봄 윤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경애, 「소유하는 ‘집/가족’에서 돌봄의 커먼즈로: 공유주거 ‘빈집’을 통해 보는 커먼즈의 돌봄윤리」, 『공간과사회』 33(4), 한국공간환경학회, 2003 참조. 여기서 한경애는 커먼즈는 자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사회적인 관계와 실천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경애, 「소유하는 ‘집/가족’에서 돌봄의 커먼즈로: 공유주거 ‘빈집’을 통해 보는 커먼즈의 돌봄윤리」, 『공간과사회』 33(4), 한국공간환경학회, 2003, 262쪽.

23 한경애, 「소유하는 ‘집/가족’에서 돌봄의 커먼즈로: 공유주거 ‘빈집’을 통해 보는 커먼즈의 돌봄윤리」, 『공간과사회』 33(4), 한국공간환경학회, 2003, 269~270쪽.

24 비인간 주체가 커머닝한다는 것은 빈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빈집’이라는 커먼즈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비인간이 커머닝하는 주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5 『中庸』 30章, “萬物並育而不相害, 道並行而不相悖, 小德川流, 大德敦化, 此天地之所以爲大也.”

고 위배되지 않음은 작은 덕(德)의 천류(川流)요, 함께 길러지고 함께 행해짐은 큰 덕(德)의 돈화(敦化)이니, 작은 덕(德)은 전체(全體)가 나누어진 것이요, 큰 덕(德)은 만수(萬殊)의 근본이다. 천류(川流)는 냇물의 흐름과 같아, 맥락이 분명하고 가는 것이 쉬지 않음이요, 돈화(敦化)는 그 조화를 돈독하고 두텁게 하여 근본이 상대해서 나옴이 무궁한 것이다. 이는 천지의 도(道)를 말씀하여 율글에 비유를 취한 뜻을 나타내신 것이다.²⁶

각 개체물은 독립된 상태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한 부분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이 만물은 천지 사이에서 함께 길러지지만 서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분은 항상 전체 속에서 부분들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길러지고 운행되는 것이다.

개체 간의 관계상에서 공생한다는 것은 서로 해치지 않고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전체(一)에서 공생의 원리는 개체들(多)이 함께 길러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전자를 작은 덕(德)의 천류(川流)라 하고, 후자를 큰 덕(德)의 돈화(敦化)라 하는데, 이 둘은 하나의 원리이다. 다만 전체(一)의 관점에서 보는지, 개체(多)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른 표현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²⁷

결국 일(一)과 다(多), 커먼즈와 커머닝을 통한 구체 커먼즈의 관계에서, 구체 커먼즈(多)의 관점에서는 서로의 커먼즈를 해치지 않고 위배하지 않으며, 커먼즈(一)의 관점에서는 구체 커먼즈들(多)이 함께 길러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즉, 커먼즈(一)와 구체 커먼즈(多)는 하나의 원리이다.

종합하여 커먼즈에 주희의 태극론을 적용한다면 그 속

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커먼즈는 태극이 그러하듯이 자기 전개를 통해 구체 커먼즈를 생성하며 이 구체 커먼즈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원리는 인간-비인간의 구분 없이 작동한다. 둘째, 커먼즈(一)와 커머닝의 결과물인 구체 커먼즈(多)의 원리는 동일하다. 커먼즈의 원리가 존재하며 이 원리가 자기 현현을 통해 구체 커먼즈(多)에 그대로 내재하고 있다. 이는 커먼즈의 원리가 구체 커먼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 커먼즈간에 동일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고유한 내재 원리로 작동한다. 결국 커먼즈의 원리는 구체 커먼즈에 공통으로 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화된 각 커먼즈 내부에서 작동하므로, 각 커먼즈의 고유한 특징, 가변성 등을 나타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커먼즈 논의에 유가 철학, 특히 주희의 태극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커먼즈의 원리와 구체 커먼즈는 태극의 일(一)과 다(多)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나누거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원리를 동일하게 내재하고 있다. 커먼즈의 원리가 구체 커먼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커먼즈의 원리의 관점에서 구체 커먼즈는 나눔과 가치 지향의 원리를 그대로 내재하고 있으며, 구체 커먼즈의 관점에서 커먼즈의 원리는 개별 이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커먼즈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게 한다.

이렇게 유가 철학에서의 태극과 같이 커먼즈가 그 원리 그대로 구체 커먼즈에서 작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인간-비인간의 구분 없이 천지 만물이 공생을 비롯한 커먼즈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커먼즈가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닌 윤리적 실천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수행적 개념임을 강조한다면 보편 법칙에 도덕성을 내재하고 있는 유가 철학의 우주·본체론을 통해 커먼

26 『中庸章句』 30章 朱熹注, “天覆地載, 萬物並育於其間而不相害, 四時日月錯行代明而不相悖, 所以不害不悖者, 小德之川流 所以並育並行者, 大德之敦化, 小德者, 全體之分, 大德者, 萬殊之本. 川流者, 如川之流, 脈絡分明而往不息也, 敦化者, 敦厚其化, 根本盛大而出無窮也. 此言天地之道, 以見上文取譬之意也.”

27 김세정, 「주희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2015, 67~68쪽.

즈 관련 논의를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朱子大全』, 『朱子文集』, 『朱子語類』, 『中庸章句』, 『中庸』, 『太極圖說』

2. 단행본 및 논문

-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 김세정, 「주희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동서철학연구』 77, 한국동서철학회, 2015.
- 김우창·윤순진·박선아·박정민·신동조, 「공동자원으로서의 산, 마을주민의 공동자원 만들기: 순천시 용계산과 구상계곡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30(2), 한국농촌사회학회, 2020.
- 박서현, 「커먼즈의 철학으로서의 공통주의: 자기 변화의 윤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68, 고려대철학연구소, 2023.
- 박순열·안새롬, 「현대사회에서 커먼즈 논의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경의선공유지를 사례로」, 『환경사회학연구ECO』 27(2), 한국환경사회학회, 2023.
- 박인권·김진언·신지연,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9(3),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 손흥철, 「周敦頤의 “太極”과 理氣概念의 關係分析」,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2017.
- 아라키 겐고(荒木見惡) 저, 심경호 옮김, 『佛敎와 儒敎』, 예문서원, 2000.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저,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책, 2014.
- 윙치찬(Wing-Tsit Chan) 저, 표정훈 옮김, 『진영첩의 주자강의』, 푸른역사, 2001.
- 윤영광, 「네그리의 공통주의와 공통적인 것」, 『범한철학』 104, 범한철학회, 2022a.
- _____, 「네오오페라시모의 커먼즈론: 자본의 커뮤니티라는 역설의 문제화」, 『시대와 철학』 33(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2b.
- 이현우·정석,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에 관한 연구: 공유인 관점으로 바라본 돈의동 쪽방촌 마을식당 현장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2(4),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 정두호, 「정도전 벽이단론(鬮異端論)의 성리학적 근거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정상봉, 「朱子形而上學의 深層構造: 太極에 대한 理解」, 『한국철학논집』 3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 정영신, 「제주 비자림로의 생태정치와 커먼즈의 변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25(1), 한국환경사회학회, 2021.
- _____, 「도시커먼즈는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전환의 정치, 열개의 시선』, 도서출판 풀씨, 2022.
- 조명기, 「지역만들기와 커먼즈 논의 확장가능성: 경남 하동군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2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 주광호, 「朱熹 太極論에 나타난 宇宙論과 本體論의 分化와 疏通」, 『대동문화연구』 54집, 대동문화연구원, 2006.
- 한경애, 「소유하는 '집/가족'에서 돌봄의 커먼즈로: 공유주거 '빈집'을 통해 보는 커먼즈의 돌봄윤리」, 『공간과사회』 33(4), 한국공간환경학회, 2003.
- 한상진, 「생태사회적 커먼즈를 향한 성찰과 관련 사례들: 울산의 영남 알프스, 태화강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ECO』 22(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 홍지은, 「커먼즈를 둘러싼 정치와 변동하는 도시 커먼즈: 청주시 산남 두꺼비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ECO』 26(1), 한국환경사회학회, 2022.
- Eidelman, T. A. & Safransky, S., "The urban commons: a keyword essay" in *Urban Geography* Vol.42 No.6, 2021.
- Kip, Markus et al., "Seizing the (Every)Day: Welcome to the Urban Common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äuser, 2015.

Abstract**A Study of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Commons in Confucianism**

Focused on Taeguk-ron

Jung, Du-Ho | DongKuk University

As a first step towards combining Confucianism and the Commons debate, this paper discusses the applicability of Confucianism's cosmology/ontology, specifically Zhu Xi's Taeguk-ron, to the Commons debate. To summarize the discussion First, just as Taeguk extends from universal principles to concrete things through self-expansion, the principle of commons extends to concrete commons, and is the ground upon which concrete commons can operate. Here, the principle of commons operates without human/non-human distinction. Second, just as Taeguk is inherent in spherical things through self-manifestation, the Principle of Commons (一) is equally inherent in spherical commons (多). However, the uniqueness of each sphere's commons is revealed in the same way that heaven, earth, and all things live in symbiosis without contradicting each other. This interpretation of the commons in Confucianism means that just as the universal moral law, the Taeguk, is inherent in all things through self-expansion and self-manifestation, and we should pursue morality as we should, so all beings can pursue and function in the common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human and non-human. If we emphasize that the commons is a performative concept that is not merely a theoretical issue, but one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issues of practice, then it is possible to reinterpret the discussion of the commons through the lens of Confucianism, where metaphysics and the practical issues of ethics and morality are congruent.

Keywords Confucianism, Commons, Taeguk-ron, Self-unfolding, Self-manifestation